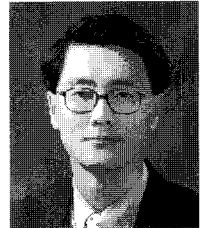


# 농업인력육성 현안 및 과제와 대책



정철영 교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인력 육성의 현안과 과제

일반적으로 농업인력의 육성은 주로 농업교육 및 농업 관련 기관에서 예비농업인 또는 기존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양성교육으로만 한정하고 있지만, 농업인력 육성의 개념은 농업인력의 확보, 양성, 진입, 유지 등의 일련의 과정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 농업인력 육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림 1]과 같이 광의의 개념으로 시각을 확대하여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력의 확보는 농업인력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예비 농업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농업교육훈련으로의 잠재 농업 인력의 유인, 농업인력 전망, 농촌인구 확보, 농가인구 확보, 외국인력 도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농업인력의 양성은 확보된 예비 농업인력을 대상으로 필요한 농업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는 교육 또는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농업인력의 신규 진입은 양성된 신규농업인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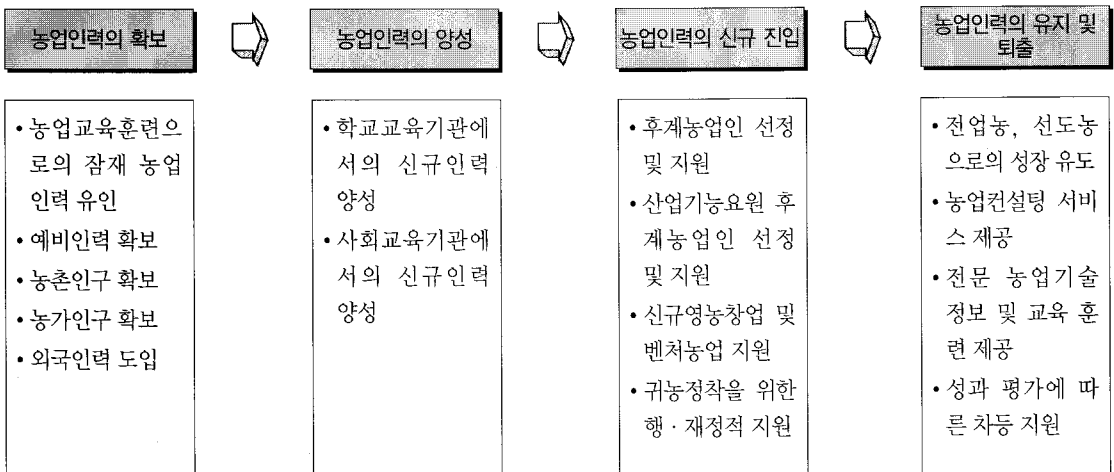


그림1. 광의의 개념의 관점에서 본 농업인력 육성 체계

농업분야로 유입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후계농업인 선정 및 지원,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선정 및 지원, 신규영농창업 및 벤처농업 지원, 귀농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과 관련이 깊다.

넷째, 농업인력의 유지 및 퇴출은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농업컨설팅 서비스, 전문 농업기술 정보 및 교육훈련 제공 등을 통하여 전업농이나 선도경영체로의 성장을 유도하고,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경우에 따라 농업분야에서 퇴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을 고려하여 농업인력 육성의 현안과 과제를 농업인력의 확보, 농업인력의 양성, 농업인력의 신규 진입, 농업인력의 유지 및 퇴출,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5가지 측면에서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 ■ 농업인력 확보

농업인력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예비 농업인력의 유인 미흡, 농촌인구 및 농가인구의 확보 미흡, 농업인력의 과부족 문제 심화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의 이미지가 제고되고, 농촌의 제반 여건이 개선되고, 농업관련 유망직업이 창출되고 이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 ■ 농업인력 양성

농업인력 양성과 관련하여서는 농업인력 양성관련 기관간 연계 부족, 농업인력 양성기관의 특성화 미흡, 교육훈련 내용의 현장적용성 미흡, 교육훈련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양성기관의 교육여건 미흡, 농업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체계적 평가 미흡, 행·재정적 지원의 차등화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력 육성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 및 협조·지원 체제 구축,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 수요자 중심의 농업교육훈련 강화, 농업인

력 육성기관에 대한 평가체제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 ■ 농업인력의 신규 진입

농업인력의 신규 진입과 관련하여서는 후계농업인 선정 및 지원의 문제,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선정 및 지원의 문제, 벤처농업 지원의 문제, 귀농 정착 지원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성장단계별 진입대책의 체계화, 사업유형별 진입대책의 구체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 농업인력의 유지 및 퇴출

농업인력의 유지, 개선 및 퇴출과 관련하여서는 농업인력의 단계적 성장 유도 미흡, 농업컨설팅 서비스 미흡, 농업인력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미흡, 성과 평가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의 차등화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력의 유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현직 은농인력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개선 및 강화하고, 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노령 재촌 탈농 및 경영이양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 지식기반 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농업인력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농업인력 수급 체계 미흡, 농업 현장 중심 “연구-교육-컨설팅”의 연계 체계 미흡, 농업 지식·정보의 공유체계 미흡, 농업·농촌의 정보화 체계 미흡, 농업인력 및 교육훈련 정보 D/B 구축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인력의 수요-공급에 대한 장단기적 예측 체계의 확립, 연구-교육-지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고, 영농교육훈련 정보 공유체계가 확립되어야 하고, 부처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농업인력 육성 과제의 대책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른 우리나라 농업관련 제반

여건 및 농업인력 구조의 특징, 농업인력 육성 현황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식기반 농업이 가지고 있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농업인력의 지식·정보능력의 함양은 물론 생산에서 가공, 유통에 이르는 농업경영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농업인력의 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농업인력 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인력 정책의 가장 우선 과제는 장래에 요구되는 인력의 양적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하여 필요한 농업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의 기초 연구와 더불어 지속적인 통계자료 제시가 요구된다.

또한, 농업인력의 확보 측면에서 농업인력의 감소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우수한 농업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의 유인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더불어, 양성된 농업인력의 신규 진입을 유인할 수 있는 행·재정적 지원제도도 적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평생학습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농업교육훈련에서는 이러한 평생학습체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루어는 전문농업교육훈련은 여전히 교육내용이나 시설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지적되었고, 신규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교육기관도 지식기반 농업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교육과정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다. 이는 농업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농림부와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지적된 농업인력 육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문제해결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력의 수급 전망에 관한 장단기적으로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결과가 농업인력 수급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농업인력양성을 위한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교육훈련 기관 중에서 전국의 농업교육훈련에 관한 교육기관, 교육과정, 세부 교육내용, 교육기간, 담당 강사 등의 정보를 총괄하여 제공하는 중심 기관을 지정 및 지원하고, 농림부 내에는 농업인력에 관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전담부서 또는 위원회를 두며, 각 지역에는 시도 단위의 중앙협의회는 물론 이와 연계된 품목별, 작목별, 수준별 산학관연협력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셋째, 농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농업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는 물론 미래 농업을 수행할 농업인력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구명하고 이를 농업교육훈련 내용에 적극 반영시켜야 한다.

넷째, 양성된 농업인력이 농업분야로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이 직업으로서 경쟁력을 갖도록 함은 물론 농업분야로의 진입 문제나 장애를 파악하여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농업분야로 신규 진입한 농업인력을 전문농업인력으로 체계적으로 성장 또는 발전시키기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전문농업인력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애로사항이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규 인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문농업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농업인력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사업의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발전가능성이 높은 농업인력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발전가능성이 전혀 없는 농업인력에게는 다른 산업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농가부채 문제와 같은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